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학교무용교육의 변화와 과제

*
탁지현

목차	Abstract
	I. 서론
	II.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의 전환
	III. 미래 학교무용교육의 실현을 위한 과제
	IV. 결론
	참고문헌

*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강사

논문투고일 : 2022.10.30

논문심사일 : 2022.11.03

게재확정일 : 2022.12.10

Changes in school dance education and task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2022 revised curriculum

Tark, Jee-hyun · Center for arts & culture education of Ewha Womans University

The 2022 revised curriculum, which will be finalized and announced at the end of this year, was promoted under the need for educational innovation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times such as digital transformation, climate and ecological change, and school-age population decline, and has a vision of "a leading person with inclusion and creativity." The main changes in school dance education following the 2022 revised curriculum notice are the possibility of entering dance-related activities due to the expansion of the number of physical activities for the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and the establishment of optional subjects, and the entry of dance subjects into high school career and convergence choices. In response to these changes, the results of exploring the challenges facing the internalization of school dance education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for high school dance subjects to become general electives beyond career and convergence, familiarity must be made through pre-experience in dance from early childhood and elementary education. Furthermore, the state must quickly recognize the legitimacy of making dance independent as an arts subject. Second, as of now, before the appointment of a dance teacher's license holder was announced, re-education and in-depth education are required to establish field expertise of active dance teachers. Also it is required to diversify training, revitalize the learning community, develop and practice educational programs to strengthen the competence of prospective educators, and apply unified dance education standards to ensure the quality of dance education. Third, educational content and methods should be sought to enable inclusive and innovative communication about the world, cultivating dance literacy through cross-curricular and self-directed thinking, and embodying multilateral topics in the context of life.

<key words> 2022 revised curriculum, school dance education, dance subject, expressive activity, elective subject

<주요어>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무용교육, 무용 교과, 표현 활동, 선택 교과

근 3년간의 팬데믹 시대가 지나가며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미래 교육의 역할과 역량 또한 재고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post-COVID-19를 논하던 시점에서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어느새 단계적 일상회복(with-COVID-19)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인공지능, AI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논의는 포스트휴먼에 대한 담론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어 이제는 초지능, 초연결 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이 인공지능과 구별되어 생존하는 방법에 대한 실존적 논의로 회귀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의 결과로서 언급되는 것은 인간 고유의 상상력과 창의성, 그리고 그것이 발현되는 인간의 ‘몸’, ‘몸성’(오레지나, 2021)에 대한 중요성이며, 그 맥락에서 무용교육이 함께 부상한다. 인류 삶의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삶의 질에 대한 존재론적 고찰, 인성 함양에 대한 갈증이 교육적 니즈로 연결되며, 인간의 구별되는 개별의 몸으로부터 시작되어 관계와 소통으로 이어지는 무용은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고의 예술적 경험임을 부인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2015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¹⁾에 또다시 2022개정 교육과정이 고시 예고되며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학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한국 사회에서 입시 제도가 온전히 바뀌게 되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시행이라는 주요 이슈를 안고 공교육의 여러 과정들을 재고하도록 만들고 있다. 7차 교육과정 이후 2015개정 교육과정까지 유지되던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 전반과 내신, 수능 평가 시스템 등에 까지 변화의 파장을 일으킬 2022개정 교육과정은 기존의 형식과 내용에 익숙해져 있던 학생들과 학교, 교사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 및 자신의 학습과 삶에 대한 주도성 강화”,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함양”,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 구축”, “교과간 연계와 통합,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 학습에 대한 성찰 강화”, “문제 해결 및 사고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교육부, 2022a:3) 등을 중점으로 구성된 2022개정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 자기주도적 학습, 분석적/비판적/창의적 사고, 경험과 삶 기반 교육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깊이 반영하고 있다. 이는 학교무용교육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다.

¹⁾ 2017년 초1,2 학년부터 순차 적용하여 2020년에서야 고3까지 전면 시행되었다.

포스트휴먼시대 교육은 전통적인 지식 전달의 교육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사고하는 교육, 경험적 교육의 방향성을 갖는다. 예술교육 또한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순서를 외워 동작을 배우는 기능적, 답습적 방법론의 반복을 넘어 학습자 스스로 사고하고, 분석하며, 비판하고, 개선하는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의 과정을 거치는 예술교육이 시대적 담론으로 개진되고 있다. 이론적 접근보다는 경험적이며, 삶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교육이 시대적 요구인 것이다(탁지현, 2021:39).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변화를 예고한 2022개정 교육과정이 그 취지에 부합하여 교육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그 가운데 학교무용교육의 온당한 자리매김과 교육적 실천을 위해 실질적인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학교무용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학교무용교육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무용교육의 당면한 과제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문서, 무용교육과정 관련 자료집,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문화예술교육 관련 세미나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 실천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II / 2022개정 교육과정으로의 전환

1. 2022개정 교육과정의 개요

2021년 11월 24일 총론의 주요 사항들이 발표된 2022개정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의 11번째 교육과정이자 7차 교육과정 이래 4번째 수시 개정되는 교육과정으로 디지털 전환, 기후·생태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혁신, 학습자 삶과 연계한 학교 교육 혁신, 미래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 혁신 등의 필요성 하에 추진되었으며,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비전으로 내걸고 <표 1>의 내용과 같은 추진 과제를 안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역량’ 기반 교육임을 언급할 수 있다. 2022 개정에서는 2015 개정에서 제시한 ‘의사소통’ 역량이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개선되면

서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협력적 소통, 공동체 역량’ 등 6가지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지식 기반’ 교육으로 진행되던 과거의 교육에서 ‘역량’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이지만 단순한 활동 중심의 교육이 아닌 사고의 관여, 수행능력의 강조, 그리고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해석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행위 주체성(student agency)’(교육부, 2021a:12)을 강조하는 교육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교육부(2021a)의 발표에 따르면 범교과학습 주제가 교과 수업에 녹아드는 ‘주제+교과 통합’ 형태로 운영되며,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간 시수 이동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교과만 20% 증감이 가능했으나, 단위 학교에서 교과와 창체를 모두 포함하여 수업 시수의 20% 내외에서 증감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학생의 적성과 진로 수준에 맞는 탄력적 맞춤형 교육을 위해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이 확대된다.

표 1.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중점 및 주요 추진 과제

개정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 지역·학교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교육 구현 • 디지털·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계 구축 	
추진과제	미래대응을 위한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상 등 교육방향 제시 • 공동체 가치 및 역량 강화 • 디지털 기초소양 강화 • 모두를 위한 교육 강화
	학습자 맞춤형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학교의 학교급간 진로연계 교육 강화 • 고교학점제 안착 •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선
	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 초·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 제고 • 창의적 체험활동 및 범교과 학습 주제 개선
	교육환경 변화 대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 함양 교과 교육과정 개발 •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혁신 • 교육과정 지원체제 구축

각 교급의 주요 사안들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에 최초로 선택과목이 도입되어 학년별 선택과목 2개, 3~6학년 총 8개 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자율 자치활동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강조하는 점과 연결된다. 또한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대근육 활용 신체활동과 실질적 움직임 기회 제공을 위해 ‘즐거운 생활’ 교과에 실외놀이 및 신체활동을 강화하여, 즐거운 생활이 현행 80시간에서 128시간으로 확대된다. 중학교 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제(1학년 1, 2학기 중 선택)로 축소되는 반면 3학년 2학기는 진로연계학기²⁾를 운영하여 학

²⁾ 진로연계학기는 초1의 1학기, 초6, 중3, 고3의 2학기 중 일부기간을 활용하여 학교급별 연계 및 진로 교육을 위해 운영된다.

교급 간 교과 내용 연계와 진로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한편,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여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으며, 여기서 필수이수학점을 축소, 자율이수학점(선택교과)을 확대하여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배워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특목고 학생들을 위해 개설되었던 전문교과 I 은 보통교과로 통합되면서, 일반고 학생들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생활 체험과 응용 등을 위한 융합 선택 과목이 신설될 예정이다.

표 2.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급별 주요변화

교급	2015 개정	2022 개정
초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즐거운 생활 8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즐거운 생활 교과 중심으로 실의 놀이 및 신체활동 강화('안전' 포함 144시간) • 선택과목 신설(8개 과목)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학기제(1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학기제로 축소(1학년 1, 2학기 선택)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및 선택 과목으로 구성 • 선택과목은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으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목 재구조화) 공통과목 및 자기주도적 진로·학업 설계를 위한 다양한 선택과목 구성 • 공통과목 유지, 일반선택과목 적정화를 통한 진로 및 융합선택과목 선택권 확보 • 융합선택과목 신설

(교육부, 2021b:3 참조)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말 최종 확정, 고시될 예정으로,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순차 적용되어 2027년에는 모든 학년이 2022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에 영향을 받는 2028년도 대입제도 또한 2024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2024년부터의 순차적용을 위해서는 개정 교육과정에 입각한 교과서 개발, 학생부 개선안 마련, 교원 역량강화 연수 등의 과정이 진행될 것이며, 학교무용교육 또한 이에 발맞춰가기 위해서는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의 변화된 지점을 인식하고, 학계와 교육현장이 함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2022개정 교육과정 내의 무용교과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 2022개정 무용 영역 교육과정의 변화

1954년 우리나라 1차 교육과정이 시작된 이래 2022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까지 70여 년간 무용은 정식 예술교과가 아닌 체육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의 일부 영역으로 편제되어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대학 입시 중심으로 개정이 이루어졌기에 소위 주요 교과로 구분되는 수

학, 영어, 과학 등의 교과와는 달리 비교과 및 예·체능 교과는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명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부터는 기능 중심보다는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시대적 관심과 중요성이 강조되며, 무용은 체육교과의 5개 단원 중 ‘표현’이라는 하나의 하위단원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무용의 편제 영역 및 내용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명칭을 가진 통합교육 교과서 내의 즐거운 생활 영역에서 신체활동으로서의 무용을 경험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 고등학교까지는 체육교과의 표현활동 단원으로 무용을 경험한다. 그 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교과 외의 학교 재량의 자율적 활동으로 무용을 접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고등학교 선택교과 중 ‘전문교과 I’의 예술계열에 8가지 교과가 교육과정으로 고시되어 있으나, 이는 특목고인 예술고등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으로 일반고 학생들은 접할 수 없었다.

표 3.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무용 편제 영역, 내용 및 시수

교급	학년	교과/영역	핵심개념	내용요소	교과시수	무용시수
초등학교	1, 2	즐거운 생활	학교, 봄, 가족, 여름, 가을, 겨울, 나라, 겨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몸, 감각, 느낌 표현 • 각 계절 느낌, 동식물 표현 • 가족, 이웃, 동네 모습 표현 • 민속춤 즐기기 	192시간	12.8시간
	3, 4	체육/ 표현활동	표현의 미 표현 양식 표현 창작 감상·비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움직임 표현 • 리듬 표현 	102시간	20.4시간
5,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속 표현 • 주제 표현 					
중학교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 표현 • 전통 표현 • 현대 표현 	90.7시간	18.1시간
고등학교	1~3			47.3시간	9.5시간	

(교육부, 2015:3-88; 이한주, 양승연, 2022:84 참조, 재구성)

이처럼 학교의 무용교육이 체육과 예술 사이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정체성의 줄타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고시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무용은 여전히 체육교과의 표현활동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한 가지 고무적인 변화는 기존 고등학교 ‘전문교과 I’에 해당하던 무용 교과가 선택 교과로 진입하였다는 점이다.

우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체육교과를 살펴보면 2015 개정의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 5개 영역이 ‘운동, 스포츠, 표현’ 3개의 대영역으로 재정비되며, 무

용은 여전히 표현의 영역에서 다루어진다. 이번 개정에서 영역별 내용 요소는 각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³⁾를 기준으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세 가지 범주로 선정·조직되었는데, “총론에서 강조하는 ‘핵심 역량’, ‘생태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의 가치,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의 ‘기초 소양’을 학습의 내용과 과정에 반영”(교육부, 2022b:3)하여 실제 수업에서 총론의 기대 목표를 구현하도록 하였다. 각 교급의 내용 요소를 바탕으로 제시된 신체활동의 예시를 정리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2022 개정 교육과정 체육교과 표현활동의 신체활동 예시

교급	학년	소영역	신체 활동 예시
초등학교	3, 4	기본 움직임의 기초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 움직임 표현(워킹, 점핑, 호핑, 스키핑, 걸로핑 등) 비이동 움직임 표현(뛰기, 비틀기, 제자리 돌기, 흔들기 등) 조작 움직임 표현(들기, 돌리기 등)
		기본 움직임의 표현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상 표현(언어 표현, 느낌이나 감정 표현하기 등) 모방 표현(사물 표현, 인물 표현, 자연 표현 등) 리듬 표현(강약/박자, 규칙적/불규칙적 리듬에 따른 표현 등) 도구 표현(줄, 공, 천, 홀라후프 등 활용하여 표현 등)
	5, 6	스포츠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꾸미기 체조, 음악 줄넘기 등
		전통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강술래, 탈춤, 티니클링, 마임, 구스타프스쿨 등
		현대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작무용, 라인댄스, 스트리트댄스 등
	중학교	1~3	스포츠 표현
전통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춤, 소고춤, 춘앵무, 향발무, 홀라, 플라멩코, 발레 등
현대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무용, 라인댄스, 댄스스포츠, 스트리트댄스 등
고등학교	1~3	스포츠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듬체조, 치어리딩, 피겨스케이팅, 아티스틱 스위밍 등
		전통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강술래, 탈춤, 소고춤, 춘앵무, 향발무, 율초, 홀라, 플라멩코, 마주르카, 발레 등
		현대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무용, 라인댄스, 댄스스포츠, 스트리트댄스, 재즈댄스 등

(교육부, 2022b:3-64 참조, 재구성)

위 <표 3>과 <표 4>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3, 4학년군은 2015 개정의 ‘움직임 표현, 리듬 표현, 도구를 활용한 표현’ 등의 활동을 유사하게 연계하고 있으며, 5, 6학년군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표현활동의 영역이 모두 ‘스포츠 표현, 전통 표현, 현대 표현’으로 통일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영

3) “‘핵심 아이디어’는 교과 내 영역 수준에서 해당 영역을 아우르면서 해당 영역의 학습을 통해 일반화 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진술한 것”(오레지나, 2022:22)이다.

역의 신체활동 예시에 있어서도 ‘춘앵무, 향발무, 홀라, 플라멩코, 발레, 현대무용, 댄스스포츠’ 등 2015 개정에서 제시되었고, 학교 현장에서의 실현 가능성과 교육 전문성 등이 문제되어 왔던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요란하게 꺾이기만 바뀐 교육과정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대영역 변화, 핵심 아이디어와 내용 영역의 선별 기준 등이 앞서 언급한 대로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이러한 표현활동의 내용 요소는 고등학교 일반선택 과목에 무용 교과가 진입하게 되면서 다루게 될 내용 요소와 상호 체계적, 보완적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무용교육에 있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화두는 전언한바와 같이 2015 개정에서 전문 교과로 분류되어 특목고 학생들이 수강하던 8개의 무용 교과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통 교과로 편제되어 일반 학생들도 선택할 수 있는 진로 선택 또는 융합 선택의 항목으로 재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존 「무용 음악 실습」과목은 폐지하고, 「안무」와 연계하여 작품 구성 및 공연에 대해 보다 “전문적으로 습득해야 할 내용 체계가 많고, 진로 설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한다”(교육부, 2022c:146)는 필요성에 따라 「무용 제작 실습」이 신설되었다.

표 5. 2022 개정 무용분야 선택과목 편제 재구성

2015 개정			2022 개정			
교과	구분	과목	교과	구분	과목	
보통	공통과목		보통	공통과목		
	일반선택			일반선택		
	진로선택			진로선택	무용의 이해, 무용과 몸, 무용 기초 실기, 무용 전공 실기, 안무, 무용 음악 실습, 무용 감상과 비평, 무용과 매체	
전문	전문 교과 I (특목고)	무용의 이해, 무용과 몸, 무용 기초 실기, 무용 전공 실기, 안무, 무용 음악 실습, 무용 감상과 비평, 무용과 매체	▶	선택 과목	융합선택	무용과 매체
	전문 교과 II (특성화고)				전문	전문공통
					전공일반	
					전공실무	

(교육부, 2021c; 오레지나, 2022:18, 재인용)

무용 영역 선택 교과는 총론에서 지향하는 인간상 구현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진로 선택 교과를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교육부, 2022c:146).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목표로 하는 “핵심역량 기

반 교과 역량 점검 및 선정, 고교학점제 기반 예술계열 선택과목 편제 재구성, 학습량 적정화 모색, 현장 적합성”(김지안, 2022:39) 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2015 개정에서 제시된 핵심역량인 ‘무용신체성, 무용동작성, 무용창의성, 무용관계성’을 유지하고 ‘무용소통성’을 다섯 번째 역량으로 추가하였다. 이는 변화하는 미래에 대한 대응력과 환경, 생태계에 대한 지속가능성,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력을 강조하는 개정 교육과정의 시대적 관점을 적절히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림 1. 총론의 주요 방향과 무용 교과 교육과정의 연계(교육부, 2022c:146)

8개의 과목들은 학교의 교육 목표와 학습자의 특성에 맞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각각의 과목들은 총론의 주요 방향을 근거로 밀접한 연계성을 갖고 있다. 이처럼 고등학교 예술계열 선택교과로서 2022 개정 무용 교과 교육과정은 “춤추는 몸과 무용의 역사, 무용 제작, 무용 감상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무용동작을 통한 미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수업을 설계하도록 하며, 학습자가 삶의 맥락 속에서 무용의 지식을 이해하고 학습 과정을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기능을 내면화하고 미적 가치와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교육부, 2022c:147).

III 미래 학교무용교육의 실현을 위한 과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신체활동이 강화되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증가와 선택 과목 신설을 통한 무용 수업 운용 가능성이 확대 되었으며, 고등학교의 무용 교과가 진로 및 융합 선택 과목으로 재구성되어 학생들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무용 교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양질의 개정 교육과정 체제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책, 제도, 물리적·인적 환경, 교육내용, 수업 운영 및 평가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특히 “양질의 무용수업 운영을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 확보와 유년기 시절부터 체계적인 무용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요구된다. 그리고 체육교과에서 벗어나 예술교육으로 인정받아 독립된 시수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이한주, 양승연, 2022:84).

1. 70여년의 오류 수정_예술로서의 무용교과 독립

“우리나라에서 ‘무용’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로 포함되어 있지만 교육법,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체육교과의 한 단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1955년 1차 교육과정을 만들 당시, 무용을 예술로 정의하지 못하고 신체 활동으로 분리하면서 체육교과의 한 영역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이다”(김지안, 2022:35).

표 6. 학교 무용교육의 실천영역

영역	체육	문화예술교육		
정책	학교체육정책	문화예술교육정책		
행정부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관련법제	학교체육진흥법 및 초·중등교육법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수행기준	2015 교육과정개정안	2014 교수·학습지도안		
담당교원	체육교사/스포츠강사, 무용분야 예술강사/문화예술교육사/TA 등			
교육영역	교과영역	비교과영역		
	체육교과 표현활동	교과연계 문화예술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교육시수	주당 2시간(기본)	주당 1시간(선택)		선택

(김지영, 홍애령, 2019:165 참조)

〈표 6〉에서 보면 학교의 무용교육은 교육부와 문체부, 학교체육진흥법과 문화예술교육진흥법, 국가 교육과정과 진흥원의 무용 교수·학습지도안, 체육교사와 예술강사 등 이중적, 이질적, 혼란스러운 체제 안에서 고군분투하여 살아남고 있다. 하지만 무용이 체육교과에서 시작되었든, 비교과 및 예술/체육교과가 주요 교과로서 인식되지 못하였든 모든 사안을 차치하고, 무용이 명백히 예술의 한 영역이라는 점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무용교육혁신위원회⁴⁾를 주축으로 2002년부터 20여년의 세월동안 지속적으로 나라와 정권에 규명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다. 무용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작업은 이처럼 매우 더디긴 하지만, 2002년 “모든 국민은 무용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초를 시작으로 2015년 무용 중등 정교사 자격증 시행, 2022년 고등학교 진로 및 융합 선택과목 진입까지 이르렀다.

본 연구자가 초등무용교육 현장에서 지난 15여 년 간 수업을 진행하며 만났던 어렵잡아 2만 명의 초등학생들에게 매 첫 시간 ‘무용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수업을 시작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떠한 선형적 지식을 동원해서라도 대답하기를 기대했을 때, 절반 정도의 학생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고, 약 1/4의 학생들은 ‘춤추는 것’, ‘발레’, ‘스트레칭’ 등 어렵פות이 연관된 단어를 나열하며, 약 1/4의 학생들에게는 ‘체육’, ‘축구’, ‘태권도’라는 대답까지 받아보았다. 심지어 무용이 예술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5학년 학생도 있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다. 20여 년간 나라에 외친 무용 교과 독립이 위로부터 변화되기 힘들다면 현장에서부터 계몽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 백 번, 수 천 번의 같은 외침이라도 그 외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계속해서 축적된다면 예술교육자로서 의심치 않는 나비효과와 순간이 올 것이라 믿는다. 적어도 본 연구자가 만난 약 2만 여명의 초등학생들은 무용이 ‘예술’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했다. 이것이 가져오는 파장은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고2, 3학년들에게 무용교과의 진로, 융합 선택이 가능해졌으니 한 단계 더 나아가 무용 교과가 일반 선택 과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아와 초등교육에서부터 무용 예술의 선 경험을 통해 그 가치에 대한 친숙성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의 독립된 예술교과에 이르는 것이 70여 년간 잘못 끼워졌던 첫 단추를 바로 끼우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⁴⁾ 무용교육혁신위원회는 2022년 11월 무용 교과 신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 대학의 무용학과 및 대학원, 유관 학회와 협회, 국공립 무용단 등이 연합하여 결성된 비영리 조직이다.

2. 교원 전문성 확보_교사 양성(재교육) 및 임용 신설

초등학교 저학년의 신체활동 시수가 확충되고 선택 과목이 신설되며, 고등학교의 선택교과로서 무용 교육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만큼 현장과 교육과정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무용 교사의 수급이 또 하나의 관건이다. 현재 학교무용교육은 <표 6>에서 시사된 바와 같이 교내의 체육교사 또는 담임교사, 외부의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TA(티칭 아티스트)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과정상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신체활동을 선택할 수 있기에 무용전공 출신의 체육교사나 담임이 아니고는 표현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에 다소 어려움(박수영, 이강순, 2016; 홍애령, 2019)이 있어 내용 선택에 소극적일 수 있으며, 그에 비해 전문성을 갖춘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TA 등이 표현활동 교육의 대부분을 전담하고 있지만⁵⁾ 학교에 임용되어 있는 정규 교사가 아니기에 파생되는 여러 문제(고용불안과 처우, 수업의 비연계성, 비정규직 강사에 대한 인식 등) 앞에 놓여있다. 조정화(2022)는 표현활동으로서 민속무용 체육수업의 문제점으로 ‘민속무용 교육의 낮은 인식도, 민속무용 수업의 시수 확보, 체육교사들의 전문성 부재, 평가의 모호성으로 인한 회피’ 등을 언급하였으며, 개선방안으로 ‘무용교육자 및 무용구성원의 체계적 교육에 대한 반성적 성찰, 각 학교에 전문 무용교사 배치 적극 권장, 무용 평가기준표 구체적 편성’ 등을 언급하였다. 또한 김지영 등(2017)은 학교에서 무용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법적 근거(전문인력, 무용교육자 관련 규정), 현행 법률조항 및 시행규칙에 신설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무수하다고 밝힌바 있다.

무용 영역은 ‘1)무용전공 체육 중등교원자격증 보유자, 2)무용 중등교원자격증 보유자, 3)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예술강사’의 3가지 경로를 통해 학교 교육의 자격을 갖을 수 있다. 현재 무용 중등교원자격증을 배출한 대학은 경성대, 경희대, 세종대, 신라대, 이화여대, 조선대, 중앙대, 한양대(서울캠퍼스/ERICA캠퍼스) 9개 대학 무용학과 및 경성대, 계명대, 공주대, 수원대, 우석대, 조선대, 중앙대 7개의 교육대학원 총 16개 대학이며, 2022년 현재까지 배출된 무용 중등교원은 총 142명 정도이다”(김지안, 2022:32). 또한 2020년 기준 학교 현장에서 활동 중인 무용 예술강사는 1,095명 정도이며, 약 2,163개의 학교에서 무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1:44).

⁵⁾ ‘2016 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보고서’(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7)에 따르면 체육 교과내 표현활동 운영학교 비율은 전체 응답수의 초등학교 94%, 중학교 65.7%, 고등학교 33.2%,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무용 관련 수업 운영학교 비율은 22.7%로 나타났다. 또한 ‘2015 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보고서’(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6)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가진 무용 예술강사에 의해 운영되는 초등학교 무용 수업이 94.8%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2022 개정에서 논하는 진정한 학생 선택권 보장은 '다중 다선택 구조'로 가야 하는데, 그걸 실현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학교 운영 및 입시 구조상 여전히 '학생 선택권 제한'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선택 과목을 대폭 늘리고 선택권을 보장한다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방 학교는 커녕 수도권 학교도 여러 과목을 편제하여 가르칠 교사는 턱없이 부족한데다 학교에서 정해주는 교과를 반강제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거의 한 학교당 교원 인력이 거의 전교생만큼 있어야 실현할 수 있을 법한 이상철학에 가깝다(<https://namu.wiki/w/2022%20개정%20교육과정/교과>).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 재량의 선택 과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이다. 무용 분야 또한 이러한 선택 수요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용 교과가 존재하지 않고, 무용 교원자격증 보유자의 임용이 개선되기 전 현재로서는 위의 세 가지 경로로 존재하고 있는 무용교사들의 현장 전문성 구축, 선택 교과로서 현장의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한 개선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것이 추후 '무용에 특기가 있는 체육교사(무용전공 체육교사)' 또는 '고학력의 무용 전공 예술인(교원자격증 소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체육교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표현활동이나 방과 후 활동만 하는 비정규직 예술강사'라는 서로 불편하고 억지스러운 현 상황의 매듭을 풀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지역과 학교, 교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 분권에 대해서는 지역별·학교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간 교육 인프라나 학교별·교사별 역량 차이에 따른 수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국민일보, 2021. 11. 30).

이처럼 그간 양질을 학교무용교육을 위한 수많은 연구들의 결과와 제언에 주목하여, 현재 충분한 자격을 소유하고도 교육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예비교육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재교육)의 다각화, 학습공동체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실천 등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전 준비되어야 할 사안이다. 교직 이수 시 학교 표현활동 교육에 대한 적절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무용전공 현직 체육교사들의 심화교육이 요구되며(김수연, 2019), 예술강사들의 수업권 보장, 학생들과의 원활한 라포형성, 수업의 연계성과 심화 등을 위해 1년 마다 개선되는 학교 배치 체제를 장기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한 수준의 무용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통일된 무용교육 표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교육자들을 양성하는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 그리고 무용교육 및 학계에서 학교무용 내실화를 위한 자생적인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공교육으로써 학교무용의 내실화는 무용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교사 전문성 뿐 아니라, 국가수준 무

용 교육과정의 제도화를 통한 복합적인 성과에 의해 가능할 수 있다”(윤정옥, 김지안, 홍애령, 2021:226).

3. 교육 내용과 방법의 동시대화_삶 연계 범교과 주제중심

학교에서의 교육이야말로 학생들이 가장 보편적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제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제도적 특성상 무용 교육의 실현 가능성, 수월성을 고려하여 일반화, 단순화 된 체험으로 그치거나 적합한 교사가 없어 건너뛰는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과거의 무용 교육은 장르중심, 기능중심 교육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수단으로서의 인식이 지배적이었다면, 점차 예술적 체험과 미적 가치 탐색의 과정 지향 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단순한 활동 중심에서 주제 중심적 무용 교육으로 변화되며, 전 세계적으로 다양성과 통합을 내세우는 융합 교육이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 교육부(2021a:12)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2022 개정 교육과정 또한 단순한 활동 중심의 교육이 아닌 사고의 관여, 수행능력의 강조, 그리고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해석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행위 주제성(student agency)’을 강조하고, 범교과학습 주제가 교과 수업에 녹아드는 ‘주제+교과 통합’ 형태로 운영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편하게 압축된 예술체험이나 단순한 분류로 구분된 대상화는 더 이상 예술과 삶의 질문을 만드는 경험이 되지 못하기에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소통하고,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나의 삶을 적용해 도출된 텍스트들을 무용의 언어로 창작, 표현, 감상해보는”(탁지현, 2021:45) 무용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2개정 교육과정에 새롭게 제시된 ‘포용성과 시민성’, 그리고 강조점인 ‘혁신과 자기주도’는 무용 교육에 있어서도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학습과 기능중심의 예술교육이 아닌, 개인의 삶의 창의적 감각과 즐거움을 넘어 위드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시대에서 지구환경과 공생하는 생태적 삶의 학습이 되어야 하며, 이것이 평생 교육으로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탁지현, 2020:30). 이러한 고민은 세계시민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세계의 동향과도 일맥상통하며, 이에 원상화(2022:29)는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학습 영역과 신체표현활동 관련 영역이 맥을 같이 하기에 “나의 신체 이해로 시작되는 무용교육이 정체성과 사고의 유연성의 기초가 되고, 이를 통해 공동체에서의 각자 역할 이해를 통한 세계시민교육의 기반이 되는 역할”을 무용 교육이 담당할 수 있음을 밝힌바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는 오랜 기간 객관주의 인식론에 기반한 교육체계를 유지해왔고, 강의식 교육과 전통적인 교실구조 그리고 객관식 평가에 익숙해 있었다. 이

로 인해 교육을 통해 표준화의 과정을 거치며 상대주의적 관점과 여기서 파생되는 다양성에 대한 담론에 불편해했다. 하지만 예술은 우리와 동떨어진, 환상적이고, 다른 세계의 아름다움만을 다루는 고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가는 과정 안에 있는 주제들을 심도있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예술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질문을 제기하고 체제 전복적인 사고를 이끌기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제들을 다루어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고 기존의 전형적인 사고에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마찰과 체제의 전복은 멈춤과 나아감을 반복하며 학생들의 유연한 열린 사고, 비판적 사고, 자기 주도적 사고 등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나와 너, 나와 지역사회, 나와 지구 그리고 공존하는 모든 것들과 실천적 관계 맺기가 되며, 동시에 예술교육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세계에 대한 감각과 연결이 중요하며, 그간 교육에서 터부시되어오거나 부적합한 주제라고 여겨졌던 사회의 여러 담론 또한 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한다.⁶⁾ 내 삶의 문제들과 연계된 주제들을 자기주도적 방법으로 고민하고 예술적 사유와 체화를 통해 자신의 실존적 존재를 인식하며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무용교육이야말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실천을 넘어 미래 무용교육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윤정옥, 김지안, 홍애령(2021:225)의 연구에서 “무용교육의 내용 영역으로 움직임 원리, 사고와 표현, 문화와 역사, 건강한 삶, 다양성과 융합이 제안되었다. 이는 홀리스틱 관점에서 무용교육이 신체의 표현활동 뿐 아니라 고차원적 사고능력과 표현, 감성, 인성, 사회문화적 측면에 이르는 다양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내용의 다각화를 유도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개발될 2022 개정의 고등학교 무용 선택교과의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역량과 내용체계를 기반으로 이러한 다각적 측면의 주제들을 삶의 맥락에서 체화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길 기대한다. 특히 예술교육이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표준화된 학습의 형태로 일반화, 범주화할 수 없기에 무용 경험의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교육적 철학의 가치가 인정받고 학생들의 ‘무용 문해력(dance literacy)’ 함양으로 창의적, 전인적, 혁신적 성장을 돕는데 일조할 수 있는 무용교육으로서 정체성을 다져가야 할 것이다.

⁶⁾ 이러한 맥락에서 탁지현(2014)이 콜롬비아 ‘몸의 학교’의 교육철학과 방법론을 우리나라의 입시지옥, 학업 스트레스, 왕따, 불안한 교우관계, 외모지상주의, 다문화, 인터넷 폭력 등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안고 가는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제시한 부분은 재고해 볼만하다.

올해 말 확정 고시될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디지털 전환, 기후·생태 변화, 학령 인구 감소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 혁신의 필요성 하에 추진되었으며,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비전으로 내걸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학교무용교육의 주요 변화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신체활동 시수 확장, 선택 과목 신설에 따른 무용관련 활동 진입 가능성, 고등학교의 진로 및 융합 선택에 무용 교과 진입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학교무용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당면한 과제를 탐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무용 교과가 진로 및 융합선택에서 나아가 일반 선택 과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아와 초등교육에서부터 무용 예술의 선 경험을 통해 친숙성을 갖도록 해야 하며, 더 나아가 국가는 무용을 하나의 예술교과로 독립시킴에 대한 당위성을 속히 인정해야 한다. 둘째, 무용 교과가 존재하지 않고, 무용 교원자격증 보유자의 임용이 개선되기 전 현재로서는 활동하고 있는 무용 교사들의 현장 전문성 구축을 위한 재교육 및 심화교육, 예비교육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의 다각화, 학습공동체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실천, 무용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통일된 무용교육 표준의 적용이 요구된다. 셋째, 다각적 측면의 주제들을 삶의 맥락에서 체화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범교과적, 자기주도적 사고를 통해 무용문해력을 함양하며, 세계에 대한 포용적, 혁신적 소통을 가능케 하는 교육 내용과 방법이 간구되어야 한다.

Illich, I.는 “학교를 통해서서는 보편적 교육⁷⁾을 실현할 수 없다. 아이들에게 새로운 교육내용을 ‘주입’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현행 추세를, 그 정반대의 제도 추구, 즉 개개인 삶의 모든 순간을 공부⁸⁾하고, 나누고, 돕는 순간으로 바꾸도록 고양시키는 교육‘망’ 형성으로 바꾸어야 한다”(Illich, I., 1970, 박홍규 역, 2009:6)고 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1970년대의 주장이지만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의 교육은 일리히가 예견한 ‘삶의 모든 순간’을 공부하고, 타인과 사회와 함께 나누고,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포용적 가치를 가진 교육으로 그 방향을 설정해가고 있는 듯하다. 3

⁷⁾ 일리히는 이러한 보편적 교육을 universal education이라 칭했으며,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

⁸⁾ “learn은 종래 ‘학습’이라고 번역됐으나, 이 책에서는 ‘공부’라고 번역한다. 학습이란 배워서 익힌다는 것으로 보통은 학교와 교사를 전제하는 반면, 공부는 학문과 기술을 닦는 일로 일리히가 말하는, 학교와 교사를 반드시 전제하지 않고 스스로 배우는 것에 더욱 가깝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Illich, I., 1970, 박홍규 역, 2009:6).

년 여간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 이후 예술교육의 방법론에 대한 고민 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아닌 세계, 이 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의 공존에 대한 인식이 더욱 커지고 있고, 커져야만 하며, 예전에 비해 더 많은 것들에 대한 예술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우리의 실존적 웰빙, 자본주의적 관점이 아닌 사고와 협력의 질적 관점에서의 웰빙, 위기회복과 관련된 웰빙의 관심으로 확장되며, 더불어 예술교육의 목표 또한 나의 웰빙 뿐 아니라 사회적 과제들을 다룰 수 있는 포용적 소통의 시각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교육부(2015),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제2015-74호, 별책11호).
_____(2021a),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시안.
_____(2021b),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의 신·구 대비표.
_____(2021c),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주요 반영 요소”, 『2022 교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연구 책임자 1차 워크숍』, 국립특수교육원, 2021. 12. 03.
_____(2022a),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_____(2022b),	2022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시안.
_____(2022c),	2022 개정 예술계열 선택교과 교육과정 시안.
김수연(2019),	“무용전공 체육교사의 표현형영 가르치기: 현실적 어려움과 해결노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지안(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 현장에 맞춘 무용교과의 설계 및 선택수요 확산의 방안”, 2022 대한민국 무용교육 포럼 자료집, 30-48.
김지영, 윤정은, 홍애령, 이소미(2017),	“학교무용의 위치 찾기: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한 정책 및 공법적 검토”, 한국스포츠키교육학회, 한국스포츠키교육학회지 24(2), 79-100.
_____, 홍애령(2019),	“미래 학교무용교육을 위한 정책제도의 쟁점과 발전 전략”, 한국스포츠키교육학회, 한국스포츠키교육학회지 26(4), 163-184.
박수영, 이강순(2016),	“초등학교 남교사가 겪는 표현 활동(무용) 수업 지도의 어려움”, 한국스포츠키교육학회,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1(2), 55-67.
오레지나(2021),	“몸성교육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2(3), 5-16.
_____(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무용분야 개발 방향 및 내용”, 2022 대한민국 무용교육 포럼 자료집, 16-26.
원상화(2022),	“세계시민교육과 무용교육의 역할”,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3(3), 17-32.

- 윤정옥, 김지안, 홍애령 (2021), “국가수준 무용 교육과정의 방향 설계: 중등 선택교과의 진입을 전제로”, 한국융합과학회, **한국융합과학회지 10(3)**, 211-235.
- 이한주, 양승연(2022), “해의 학교 무용교육 정책 및 방향”,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3(3)**, 79-93.
- 조정화(2022), “표현활동으로서 민속무용 체육수업에 대한 체육교사의 인식탐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탁지현(2014), “콜롬비아 <몸의 학교> 교육 구조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5(4)**, 53-69.
- _____(2020), “포스트 코로나시대, 문화예술교육의 적극적 향유를 위한 쟁점 탐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1(4)**, 19-35.
- _____(2021), “하브루타 기반 예술교육의 가치 탐색”,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2(2)**, 37-50.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6), 2015 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_____(2017), 2016 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_____(2022), 202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홍애령(2019), “초중등학교 체육교사의 표현활동 인식과 표현활동 교수전문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한국예술연구 23**, 75-99.
- Illich, I.(1970), *Deschooling Society*, 박홍규(역, 2009), **학교 없는 사회**, 생각의 나무.
- 국민일보 2021. 11. 30. 박정경, 최준영, 권도경 기자 ‘교육부 2022개정 교육과정 주요사항’
- 나무위키 2022. 11. 24. ‘2022 개정 교육과정/교과’ <https://namu.wiki/w/2022%20개정%20교육과정/교과>